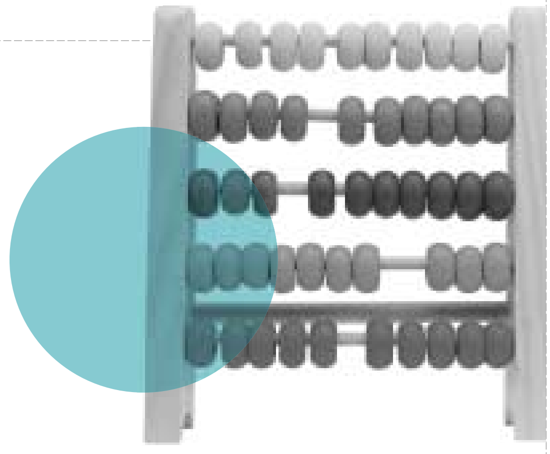
글 _ **전흥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장)

17,725원 對 2,280원



알렉시스 토크빌은 1840년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사회를 지탱하는 두 가지 결정적 요인으로 기부와 자원봉사를 들었다. 당시 신생국인 미국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있어 개인과 사회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필연적인 행동은 이후 사회규범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두레나 향약 같은 지역협력 및 자치체계들은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잊혀진 관습으로만 이해되고 있다.

기부와 봉사활동은 교류의 통로

기부와 자원봉사는 정부의 정책, 행정에 의한 서비스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요소이며 앞으로도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기부와 자원봉사가 단순히 물리적인 자원과 정보의 이동의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자아를 확인하고 인간존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교류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동모금회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부와 봉사활동에 관한 조사결과는 기대 섞인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조사대상인 1173명 중 456명(38.9%)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 달 평균 3.7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원봉사를 경험한 학생 10명 중 8명(78.6%)은 '봉사활동 이후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답해,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봉사활동이 사회참여 의식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웃돕기성금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5.2%)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게 돼 마음이 뿌듯하다'고 응답한 반면,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19.9%), '성금으로 내는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든다'(4.9%), '내가 오히려 어려운 이웃이다'(4.5%) 등으로 답한 학생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부금도 용돈처럼 부모들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금액으로 환산한 봉사활동의 가치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인디펜던트 섹터(Independent Sector)'는 지난해 미국인들이 실천했던 자원봉사활동의 가치가 220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이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2조원이 넘는데 이는 우리정부의 2005년도 총예산 195조원의 11.3%나 된다. 재미있는 것은 매년 시간당 단가(?)도 계산하는데 2004년은 봉사활동 1시간당 가치가 17달러 55센트(약 17725원)로 2003년에 비해 약 36센트 올랐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는 지난 연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의 경우 당해 기간 동안의 용역가액을 전액 공제하고, 인건비는 일 5만원을 기준으로 기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가 허용'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이 봉사활동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처럼 세금공제까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자칫 섣부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오히려 봉사활동의 차별화, 내면적 가치저하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또 하나, 봉사활동의 가치를 환산하면서 내내 마음에 걸리는 것은 월 56만 7천원에 묶여 있는 우리 최저임금의 현실이다.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2280원이 된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의 생계비의 가치와 봉사활동의 가치를 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또한 무관하다고 주장하기에도 마음 한 구석이 영 개운치 않다.